

중동 및 튀르키예 관광시장 동향 ['26. 4월]

□ 관광전략 및 정책 동향

○ (사우디아라비아) '26년 1분기 내수 관광 16% 성장

- 사우디아라비아 관광부에 따르면, 1분기 내수 관광객 수는 약 2,89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% 성장, 정세 불안 속에서도 성장세를 유지
- 라마단과 이드 알 피트르 휴가 기간 동안 약 1,000만 명의 국내 관광객이 여행했으며, 국내관광 지출액은 102억 사우디 리얄(약 4조 원)로, 전년 동기 대비 5% 증가하였음

○ (사우디아라비아) 항공-철도 통합으로 '스마트관광' 인프라 강화

- 사우디아항공과 철도공사(SAR)는 항공권과 하라만 고속열차 승차권을 단일 결제로 예약 및 발권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함
- 국제공항과 주요 종교적 목적지인 메카와 메디나와의 연결을 통해 관광객의 항공편과 철도 서비스 간 이동이 쉬워져 성지순례 관광 유치 활성화

○ (UAE) 두바이, 관광객 감소에도 불구하고 거주자 소비가 시장 회복력 견인

- 호스피탈리티 그룹 'Vision Hospitality'에 따르면, 두바이 관광지 중심 매장의 경우 외국인 결제 비중이 기존 60%에서 최근 14%까지 급락하며 매출 타격을 입었으나, 거주자 중심의 매장들은 안정세를 유지중임
- 거주자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됨에 따라, 업계는 가성비 메뉴 강화, 아침 식사 옵션 확대, 가격 경쟁력 확보 등 거주자 타겟의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대응하고 있음

○ (UAE) 에티하드 레일, 사우디아라비아-아부다비 간 첫 여객 수송 시험 운행

- 영공 폐쇄에 따른 항공 마비 상황에 대응하여, 사우디 국경에서 아부다비 구간까지 350여 명을 수송하는 첫여객 열차 시험 운행을 완료함
- 에티하드 레일은 향후 UAE 내 11개 도시를 연결하고 최대 시속 200km로 운행될 철도망이며, 향후 지속 가능한 대안이자 인접국과의 인적·물적 교류를 잇는 핵심 전략 인프라가 될 전망이다

- (오만)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'스테이크이션' 관광 집중 추진
 -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대규모 단체 관광 및 주요 행사 취소가 잇따름에 따라, 오만은 주력 대상을 '내수 및 역내 관광객'으로 전환
 - 스테이크이션 수요를 겨냥한 농장 체험 등 신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, 오만을 역내에서 가장 안전한 목적지로 포지셔닝하여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려는 전략임

□ 비자 및 업계 동향

- (사우디아라비아) 러시아와 상호 무비자 입국 협정 체결
 -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는 상호 무비자 입국 협정을 체결하고, 오는 5월 11일부터 양국 시민의 무비자 방문을 허용한다고 발표함
 - 관광, 비즈니스, 친지 방문 목적인 경우 연간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며, 복잡한 비자 발급 절차 생략을 통해 양국 간 이동 편의성을 개선함
- (튀르키예) 호주인 무비자 입국 허용을 통한 관광 활성화 추진
 - 튀르키예 정부는 호주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해 최대 90일간의 무비자 입국을 전격 허용함
 - 이번 조치는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은 튀르키예의 단독 결정이며, 코로나 이전 대비 두 배 가까이 성장한 호주 관광 시장('25년 약 21.9만 명 방문)을 선점하려는 전략임
- (UAE) 두바이, '버즈 알 아랍' 호텔 개관 후 첫 대규모 레노베이션 진행
 - 두바이의 랜드마크인 '버즈 알 아랍' 호텔이 약 18개월간 대규모 레노베이션을 위해 폐쇄 될 예정이며 '27년 10월 재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음
 - 이번 레노베이션은 버즈 알 아랍 호텔의 독특한 건축학적 개성을 보존하는 동시에, 노후된 시설과 내부 장식을 새롭게 단장하는 작업임
- (UAE) 아부다비, '알 아인 호텔 리모델링 인센티브 도입으로 관광 인프라 확충
 - 아부다비 문화관광부는 알 아인 소재 호텔 소유주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비용의 최대 12%를 환급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함
 - '25년 알 아인 방문객이 전년 대비 9% 이상 증가(약 47만 명)하는 등 성

장세에 맞춰, 지역 특색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연계한 문화 관광 수요를 선점하려는 전략임

○ (튀르키예) 터키항공, '26년 신규 노선 확대 및 대규모 기재 도입

- 터키항공은 '26년 중으로 예레반, 청두, 우루무치 등 6개 도시에 신규 취항하며 국제 노선을 대폭 확장하고, 연내 신규 항공기 90대를 도입할 계획임

□ **아웃바운드 여행 동향**

○ (GCC) 중동 지역 주요 항공사 운항 가동률 52% 기록하며 단계적 회복세 진입

- 중동 주요 항공사 운항 가동률이 4월 초 기준 2월 27일 수준의 약 52% 수준까지 회복되었음
- 주요 항공사별 회복률은 에미레이트 72%, 에티하드 63%, 카타르 항공 35% 수준이며, 지속적으로 운항이 확대되는 추세임

○ (UAE) 에티하드 항공, 중국 직항 노선 대규모 증편

- 에티하드 항공은 '26년 10월부터 중국 내 5개 도시(상하이, 광저우, 항저우, 청두, 선전)에 신규 노선을 추가하여 기존 1개 도시(베이징), 주 7회 운항을 6개 도시, 주 35회로 증편할 예정임
- UAE-중국 간 상호 무비자 입국 제도를 기반으로 여행 편의성이 극대화된 시점에 맞춰 공급에 집중하고, 중국 동방항공과의 합작 투자를 통해 중국 내륙 전역으로의 원활한 환승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비즈니스 및 여행객 수요가 증가 예상

○ (UAE) 하절기 여행 수요에도 불구하고, 고운임 및 공급 부족에 따른 예약 지연

- UAE 거주자들의 하절기 여행 수요는 높으나, 전쟁으로 인한 항공료 폭등 및 운항 횟수 감소로 인해 상당수 가구가 관망세를 유지하며 예약을 미루고 있음
-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은 고운임에도 불구하고 유럽, 일본, 스리랑카 등으로 여행을 확정 짓고 있어 소득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함
- 최근 정세가 다소 진정세를 보임에 따라 문의량은 점진적으로 회복 중임

며, 정치적 안정이 확보될 경우 억눌린 수요가 빠르게 폭발할 것으로 기대됨

※ 출처 : 현지 언론 종합 (www.arabnews.com, www.khaleejtimes.com,
www.gulfnews.com, www.thenationalnews.com 등)